

양식에 '산' 사용 멈추자... 장흥바다·갯벌 '풍어'로 화답

군,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 162어가... 전년보다 527% 증가 2008년부터 무산김 양식...잡피 군란지 확산에 어류 산란장 늘어

장흥군이 바다를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1석2조 '친환경 양식'으로 기후 위기에 대처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은 2021년 32어가 6억원에서, 2022년 162어가 35억원으로 5배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527%가 증가한 셈이다.

장흥군은 10개읍면 가운데 5개 지역이 바다와 접해있는 고장으로, 갯벌이 형성된 이곳에서는 김과 매생이, 키조개와 새꼬막 등 해조류와 패류가 많이 생산된다.

지난 2008년부터 장흥군은 바다를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무산김 양식을 시작했다.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은 무산김은 '착한김'으로 주가를 높이며 어가 소득 향상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양식에 '산' 사용을 멈추자 바다가 응답했다. 바다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잡피 군란지가 확산되어 어류의 산란장이 늘어난 것이다.

덕분에 새조개, 바지락, 키조개 등 패류 어획량도 증가했고, 이는 낙지 등 다른 어종까지 생산량까지 늘렸다.

바다 환경 개선으로 살아 숨 쉬는 바다, 미래의 식량 보고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지역 어업인 모두가 친환경 어업의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장흥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어업 확대와 바다환경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 친환경 수산물 인증직불제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친환경을 실천하는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제도다. 직불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군은 청정해역 생태복원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 사업 및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와 어민들까지 폭 넓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특구의 명성에 걸맞게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며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지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군 어업인들이 친환경 양식법으로 재배된 무산김을 수확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화순군, 수돗물 절약하면 수도요금 13% 할인

물 절약 캠페인 총력... 이번달부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요금 산정

화순군이 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수돗물 절감률 10%까지 100% 감면, 초과분 최대 13% 감면에 나섰다. 화순군은 12월 사용량부터 한시적으로 수돗물을 전년 동기 대비 40%까지 절감한 가구에 최고 13%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물 절약 홍보 캠페인 영상 및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시를 했으며, 절수 운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

하지만 현재 소비량을 감안하면 식수난과 농업 및 공업용수 부족, 농작물 피해 등 군민의 불편과 고통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절수운동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해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12월 사용량부터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수돗물을 10% 절감한 경우 절감량의 100%를 감면하고, 10% 초과에서 40% 이하 절감량에 대해서는 절감량의 10%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뭄 상황이 훨씬 심각하며 절수 효과가 조기에 20% 이상 도달하지 못하면 내년 초에는 제한급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생활용수 절약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민족의 애환 담긴 전통 민화 배워요"

강진군농촌활성화센터 민화체험 기초교육 2기 수료식

강진군농촌활성화센터가 진행하는 민화체험 교육과정이 호응을 얻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12회에 걸쳐 민화체험 기초교육과정을 마치고 최근 수료식을 가졌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민화체험 기초교육과정 2기로 22명이 수료했다. 앞서 상반기 1기 교육에 20명이 수료해 총 42명이 교육을 완료했다.

민화체험교육은 서민들의 애환과 삶이 담긴 민화에 대한 이해와 기초도안, 채색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으로 민화 인구의 저변 확산을 목표로 진행했다.

강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전통 민화의 계승 발전 연구모임인 강진민화협회 회원 안미현, 양영식 강사가 맡았다.

운영갑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은 "본인이 가진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수료생들에게도 단순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민화 작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 많은 군민에게 우리의 민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
강진군에 거주하는 전통 민화의 계승 발전 연구모임인 강진민화협회 회원 안미현, 양영식 강사가 맡았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 시립합창단 '조용필 히트곡' 합창 무대

22일 문화예술회관... '단발머리' 등 혼성합창 전석 무료

나주시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말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을 '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무료 공연을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남녀노소 세대불문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가왕(歌王) '조용필'의 히트곡을 편곡한 현대식 합창 무대로 기획했다.

시립합창단(예술감독 전진)은 단원들의 합창에 바이올린 독주, 밴드 합연, 화려한 조명과 안무 연출을 더한 '쇼코이아'(show Choir)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1부 공연에서는 'Bounce', '산장의 여인', '돌아와요 부산항에', '바람의 노래', '단발머리', '고

추잠자리', '그대 발길이 머무는 곳' 등 가왕의 주옥같은 명곡을 남녀혼성합창 무대로 꾸민다.

2부에서는 '비련'(남성합창), '못살겠다 피꼬리'(여성합창)와 'Q', '꿈', '친구여', '미지의 세계', '모나리자' 등을 불후의 명곡을 들려준다. 관객들의 환호와 성원에 보답하는 짝짝 앙코르 공연도 준비되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한 공연장 입장은 문화예술과 담당자 연락처로 티켓 매수·이름을 문자 전송하면 되고 현장 티켓은 공연 당일 오후 6시부터 문화회관 입구에서 앞좌석부터 선착순 배부한다.

담양군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

담양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는 군민이 청구 요청 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 정보 공표, 부군수 이상 결재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 공개 등 4개 분야 10개 지표를 나눠 이뤄졌다.

군은 사전정보 등록건수·총실성, 청구처리 적정성, 고객 수요 분석과 이용자 만족도 실적 분야에서 만점에 가까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보통 등급에서 최고등급으로 수직 상승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보건소 '녹색건축물' 탈바꿈

국토부 그린리모델링사업 선정 10년 지난 보건소 본소·지소 등 13곳에 50억 투입...단열 등 개선

나주시보건소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쾌적하고 안락한 녹색건축물로 변모하게 됐다.

나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시보건소 본소 1곳과 보건지소 12곳 등 총 13곳이 선정돼 국비 35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과 설비 성능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주시보건소는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착수한다.

확보한 국비 35억원과 시비 15억원을 포함 총 5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성능 개선 대상 13개 건축물에 내·외벽단열재,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성능 창호, 고효율(LED)조명 등을 새롭게 적용한다.

여기에 실내 공기질 시스템 향상과 한여름 지붕의 뜨거운 태양열을 반사해 건물의 온도를 낮추는 쿨루프(Cool Roof) 공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나주시보건소는 공모사업에 대비해 사업발굴 수요조사와 체계적인 컨설팅 실시를 통해 목표한 시보건소 본소를 비롯해 12개 보건지소가 모두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보건소 전체 공간을 보다 더 쾌적하게 개선하고, 에너지 성능과 공기질 향상을 통해 시민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보건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 초·중·고 신입생 내년부터 입학축하금

10·20·30만원 차등 지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장성군이 민선8기 주요 공약인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중·고교 신입생이다. 타 시·군 또는 해외에서 장성으로 전학 오는 학생도 해당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을 지원한다.

장성군은 이를 위해 '장성군 초·중·고교생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

했다.

지금 신청은 권관자, 후견인 등 학생의 보호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성군은 자책적인 절차를 거쳐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축하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신학기 신청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입학축하금 지급으로 신입생 가정의 교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기대한다"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투자라는 생각으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과 미래 인재 양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 전통시장 사용료 80% 감면



김한중(오른쪽) 장성군수가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500개 점포 상인 500여명 혜택

장성군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전통시장 사용료를 80%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 지원을 위한 결정으로 감면 대상은 장성지역 전통시장인 황룡, 사창, 사거리시장 등 3개소 500여 개 점포다. 2022년 12개월 사용료의 80%를 감

면하며 총 감면액 규모는 2300만원이다.

장성군은 전통시장 시설에 대한 소방·전기·위생 분야 점검과 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황룡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희망을 잃지 말고 힘내시기 바란다"면서 "군도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과 고객 유치 프로그램 마련 등 전통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